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3(2): 69~75, 2017. 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ISSN 2465-8146

프랑스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내용

홍광표* · 오정남**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Forms and Meanings founding in the Cloister Gardens of the 7 French Monasteries

Hong, Kwang-Pyo* · Oh, Jung-Na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mal characteristics of cloister gardens which are most common among the monastery gardens, and to investigate how these formal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certain function, or more precisely, a meaning. The study was conducted on seven monasteries in France.

The type of cloister gardens to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of plant elements, water elements, and facilities in addition to basic things such as location, shape, space compos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unction of the cloister garden varies from the functions of separating and connecting the living spaces of the cathedral and the rhetoric, the functions of rest and reading, the function of meditation, the function of contemplation, and the function of labor and the charisma that occurs in Lavabo.

Secondly, the shape is represented as square, rectangle, and trapezoid with slight variance depending on the mental characteristics or the arrangement of the monastery.

Third, the spatial composition seems to take an original form of '十', shaped by criss cross lines, but over time, spatial composition changed and transformed to the needs of the monasteries.

Fourthly, it can be seen that traffic lines have developed into various shapes such as '十', 'X', and 'ㅈ' from original froms leading to irregular and diverse space configuration.

Finally, in the cloister garden, various plant elements are introduced into spaces according to traffic lines, and there are several elements such as wells, fountains, and entrances, and a bench was introduced as a facility.

Key Words: Formal Characteristics, Meaning, Plant Elements, Water Elements, Facilities, Meditation Space

국문초록

본 논문은 수도원 정원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회랑식 정원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형식적

Corresponding author: Hong, Kwang Py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Phone: +82-10-5334-7436, E-mail: hkp@dongguk.ac.kr

특징이 어떠한 기능 즉, 의미와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프랑스에 소재하는 7개소의 수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회랑식 정원의 형식은 위치, 형태, 공간의 구성, 동선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과 더불어 식물요소, 수경요소, 시설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랑식 정원의 기능은 성당과 수사들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구조적 기능, 휴식과 독서의 기능, 명상공간으로서의 기능, 관상의 기능, 라바보에서 일어나는 세욕과 노동의 기능 등으로 다양하였다.

둘째, 형태는 정방형과 장방형 그리고 사다리꼴 등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지적 특성이나 수도원의 배치형식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셋째, 공간구성은 '十'자형 동선에 의해서 정형적으로 구획되는 것이 원형적 형태로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규범성이 수사들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동선은 '十'자형, 'X'자형, 'ㅈ'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선 역시 공간구성과 같이 원래의 규범적 형식으로부터 매우 불규칙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회랑식정원에는 동선에 따라 구획되는 공간에 다양한 식물요소가 도입되고 있으며, 우물, 분수, 수반 등과 같은 수요소가 있고, 시설물로는 벤치가 도입되어 있었다.

주제어: 형식적 특징, 내재된 의미, 식물요소, 수경요소, 시설물, 명상공간

Ⅰ. 서론

수도원은 이집트 수도자인 파코미우스(Phachomius, ?~347)가 320~325년경 이집트 타베네제(Tabennese) 지역에 세운 수도원이 효시가 된다. 파코미우스는 신약성서 4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원시공동체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형태를 수도원에 담아내고자 했다. 파코미우스의 수도원 이후 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수도원들은 규범을 정해 수도자들의 생활을 통제하여 금욕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서방 유럽사회에도 수도원이 전파되는데, 서방교회 고유의 특징을 가진 수도원은 아일랜드에 세워진 수도원과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통해서 토착화된다. 이러한 서방의 수도원들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다양한 교단이 형성되었으며, 교회와 더불어 중세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작용하였다(최형걸, 2004, pp.20~21, 31).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자들은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규범이 있어 그것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규범에 대응하여 수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도원만의 독특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수도원 정원 역시 그러한 규범적 틀 속에서 수도자들의 생활과 관련을 맺으면서 나타난 공간으로, 특히 수도원의 중심에 위치하여 성당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회랑식 정원(Cloister Garden)의 경우는 수도원 정원의 몇 가지 유형[1]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된다.

회랑식 정원의 태동은 로마의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아트리움(Atrium)이나 페리스틸리움(Peristylium)이 원형이 된다. 아트리움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공간으로 열주에 의해서 둘러싸인 주랑식 중정이며, 페리스틸리움은 지붕이 없는 가족실로 무열주 공간이다. 따라서 회랑식 정원은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이 혼합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어 수사들만의 휴식과 독서, 명상 그리고 관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수도원 정원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회랑식 정원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형식적 특징이 어떠한 의미와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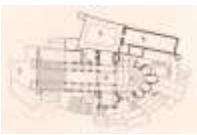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회랑식 정원의 형식과 내용을 살핀 다음 직접 현장을 찾아 문헌연구에서 찾은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직접 답사를 실시한 수도원은 프랑스 전국에 위치하는 13개소이며, 그 중에서 도면이나 기록 등과 같은 연구자료가 비교적 충분한 7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수도원 회랑식 정원의 형식은 위치, 형태, 공간의 구성, 동선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과 식물요소, 수경요소, 시설물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Ⅲ. 결과 및 고찰

표 1. 연구대상 수도원

수도원	소속교단	수도원 건립/ 정원 건립	창건자	위치
퐁프화드 수도원 L'Abbaye de Fontfroide	베네딕트회 ▸ 시토회	1093 /1093	Aymeric II	
르 또호네 수도원 Abbay du Thoronet	베네딕트회 ▸ 시토회	1136	일군의 수사들	
후와요몽 수도원 Abbaye de Royaumont	베네딕토회 ▸ 시토회	1235	Saint Louis Louis IX	
몽생미셸 Mont St. Michel	베네딕토회	966 /1211	Richard I	
실버칸 수도원 Abbaye de Silvacane	시토회	1145	Saint Robert	
세낭크 수도원 Abbaye Notre-Dame de Sénanque	시토회	1148	Cistercian monks	
라그라세 수도원 Abbaye de Lagrasse	베네딕토회	547/1760	Saint Nebridius	

1. 회랑식 정원의 형식

1) 위치

회랑식 정원은 항상 수도원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곳은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삶과 수사들의 숙사와 식당, 부엌 등과 같은 물적인 삶이 구분되는 전이공간이 된다. 회랑식 정원은 벽체에 기둥을 세운 회랑으로 위요되며, 회랑 외곽에는 사방으로 연결되는 복도가 수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 즉 수사들의 기숙사로 연결되는 계단실[2], 객실, 식당, 부엌, 토론실, 수사실, 올리브오일이나 포도주를 저장하는 저장실(Cellar) 등을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랑식 정원은 수사들의 다양한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입지성을 보이게 된다.

수도원의 가장 초기 설계도라고 알려져 있는 스위스의 생 갈 수도원(The Convent of St. Gall)의 설계도는 고츠베르트(Gotzbert, 816~837)가 수도원장을 지내던 시기인 820년 즈음에 라이헤나우의 수도원장이자 바젤(Basel)의 주교인 하이토(Heito)가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양피지에 그린 이 설계도는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이상적인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3개의 회랑식 정원이 그려져 있다. 그 중 성당과 수사들의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곳에 그려진 가장 큰 회랑식 정원(번호 ②)은 현재 수도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회랑식 정원의 위치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이 설계도가 그 이후의 수도원의 건축에 하나의 전형으로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2) 형태

최초의 수도원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생 갈 수도원의 설계도에 그려진 회랑식 정원은 사방으로 아치형 회랑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밖으로 복도가 있어 성당과 수사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회랑에는 정원과 복도를 연결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출입구를 통해 십자형의 동선이 정원을 구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선의 교차점에는 파라디소(paradiso)라고 하는 상징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 회랑식 정원의 형태는 정방형이고, 사방이 대칭적인 배치를 보이고 있는 매우 정형적인 형태이다. 생 갈 수도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회랑식 정원은 그 이후에 건립되는 수도원에 하나의 전형으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입지적 특성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정방형이 아닌 장방형이나 사다리꼴과 같은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동선 역시 '十'자형이 아닌 'X'자형 등 다른 형식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대상 수도원 가운데에서 퐁프화드 수도원과 세낭크 수도원 2곳은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후와요몽 수도원은 동서길이 48.35m, 남북길이 46.80m로 동서길이가 약간 긴 장방형이고, 실버칸 수도원은 남북방향이 약간 긴 장방형을 취하고 있다. 한편, 르 토호네 수도원, 몽생미셸 수도원, 라그라세 수도원의 경우에는 사다리꼴의 비정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원이 경사진 지형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암반이 있어 정형적 형태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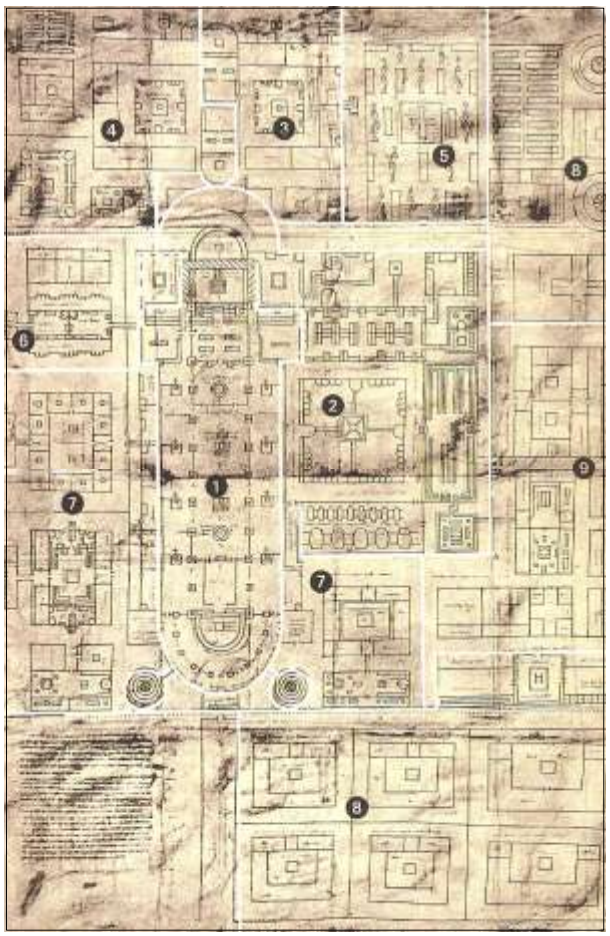


그림 1. 생 갈 수도원 설계도(자료: Canneva-Tetu, 2013, p.11)
① 성당, ② 수도원 중정, ③ 수녀원 중정, ④ 병원 중정, ⑤ 묘지, ⑥ 객사, ⑦ 숙사, ⑧ 농장, ⑨ 아틀리에

그림 2. 연구대상 수도원의 경관

보인다.

연구대상 수도원의 회랑식 중정을 통해서 볼 때 수도원 정원의 형태는 대체로 정방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나 사다리꼴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간구성

회랑식 정원은 회랑으로 구획된 독립된 공간이며, 정원을 둘러싼 4면의 복도와 일정한 출입구를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인다. 복도에는 성당으로 연결되는 문과 수사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개의 방이 붙어있어, 회랑식 정원은 수도원의 모든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인다. 회랑식 정원의 내부는 '十'자형, 'X'자형 등으로 난 동선을 두어 공간을 구획하고 있으며, 구획된 공간에는 식물재료를 도입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생 갈 수도원의 설계도에는 정원이 '十'자형 동선에 의해서 정형적으로 구획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대상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은 일정한 규범 없이 수사들이 필요에 따라 동선을 내고, 동선으로 구획된 공간에 다양한 식물재료를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원의 중심에는 우물, 분수, 나무 등과 같은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의미 없이 경관성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도 있을 수 있다.

4) 동선

회랑식 정원은 복도로부터 정원으로 연결되는 동선에 따라서 정원 내부의 동선구조가 결정되는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 생 갈 수도원의 경우에는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복도 중심으로부터 회랑 흉벽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정원으로 연결되는 동선을 냄으로써 정원 내부가 '十'자형의 동선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초기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은 사방이 대칭을 이루는 정형적인 형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연구대상 수도원을 보면 '十'자형 동선과 더불어 다양한 동선형식이 나타나고 있어, 시대가 흐르면서 동선에서

나타나는 규범성보다는 정원의 이용에 따른 기능성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도원의 경우에는 '十'자형, 'X'자형 그리고 실버칸 수도원처럼 동서측 복도의 중심에서 연결되는 동선과 교회 쪽인 남측 복도 양 끝단의 회랑에서 연결되는 동선이 정원의 중심부에서 만나 'ㅈ'자 형식을 취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어 회랑식 정원의 동선이 매우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5) 도입요소

(1) 식물요소

생 갈 수도원의 설계도에서는 식물요소에 대한 정보는 읽을 수가 없어 회랑식 정원의 초기 식물요소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단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때 회랑식 정원에는 약용식물(Medicinal Herbs)이 주로 심어졌으며(Erlande-Brandenburg, 2010:81), 더불어 방향성 식물이나 관상용 식물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회랑식 정원이 약초원, 명상원, 관상원의 기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식물요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매우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회랑식 정원의 원형적 경관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을 조사한 결과, 정원에 도입된 식물은 관목이나 초화류가 많았는데, 이것은 교목을 심게 되면 시각적으로 방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소통이나 햇빛을 받는데 불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

연구대상 수도원의 정원에서 나타나는 식재형식은 우선 동선을 따라 회양목과 같은 경계식재용 수목을 도입하여 동선과 내부의 녹지공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경계식재로 구획된 내부에는 잔디를 심거나, 초화류나 장미, 라벤다와 같은 방향성 식물을 심는 경우가 많았으며, 약용식물을 도입한 곳도 있었다.

실버칸 수도원의 경우에는 동선으로 공간이 구획되는 경계에 회양목을 심고, 회양목으로 구획된 내부 공간에는 라벤다를 심었으며, 올리브나무 한그루도 심었다. 또한 우물 근처에는 키가 큰 향나무도 몇 그루 심어놓았다.

(2) 수경요소

정원에 도입되는 수경요소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우물이었다. 우물은 동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에 자리를 잡는 경우와 한쪽으로 치우쳐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식당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떤 경우이든 우물은 다양한 용도의 물을 공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수도원의 회랑식 중정에 도입된 우물이 정원 한 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퐁프화드 수도원이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은 라그라세 수도원과 실버칸 수도원이었다.

우물이 아니라 분천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르 토호네 수도원의 경우에는 회랑식 정원의 중심에 분천을 놓지 않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식당이 있었던 방의 맞은편 회랑에 분천을 설치하여 식당과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천은 라바보(Lavabo)라는 이름이 붙여진 6각형 벽체와 지붕을 가진 독립된 공간의 중앙에 놓여있으며, 분천 주변으로는 일정공간을 포장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바보는 두 개의 아치형 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에 놓인 분수에서 계속해서 분출되는 물은 몸을 씻고, 세탁을 하고, 조리용 재료를 세척하는 등 일상생활에 쓰였다고 한다. 특히 수사들이 성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Molina, 2013:51), 이것은 이슬람교회인 모스크 마당에 놓인 분수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와요몽 수도원의 경우에도 정원 남쪽의 식당 쪽에 분천이 있는 라바보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어져서 볼 수가 없다. 세낭크 수도원의 경우에는 건물 안에 분수를 둔 형식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분수가 식당 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분수반이 도입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원의 중심부에 설치하였다. 분수반의 형태는 라그라세 수도원은 원형, 후와요몽 수도원의 경우에는 팔각형이었으며, 세낭크 수도원의 경우에는 정방형이었다.

(3) 시설물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에는 특별히 조형물이나 점경물과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벤치는 눈에 띄었는데, 회랑 그

그림 3. 연구대상 수도원의 수경요소

자체가 앉는 자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벤치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다. 벤치는 회랑과 붙여서 복도 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방쪽으로 벽에 붙여서 설치한 경우, 정원 안쪽의 수반 주변으로 놓은 경우로 구분되었다. 벤치의 종류는 회랑에 붙여서 길게 연결된 벤치형식이 있었고, 2~3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개별벤치의 형식이 있었다.

연구대상 수도원 가운데에서 벤치를 놓지 않고 회랑 자체가 벤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몽생미셸 수도원, 세낭크 수도원, 르 토흐네 수도원이었고, 정원 맞은 편 방의 벽 쪽으로 개별 벤치를 설치한 경우는 라그라세 수도원이었으며, 회랑에 붙여서 연속된 형태의 벤치를 복도 쪽으로 설치한 경우는 후와요몽 수도원과 퐁프화드 수도원이었다. 후와요몽 수도원은 복도 쪽에 벤치를 놓았지만 수반 주변으로도 사면에 개별 벤치를 설치하여 정원 한가운데 조성한 수반이 수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회랑식 정원의 내용

1) 기능

회랑식 정원의 기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당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구조적 기능, 둘째는 수사들이 휴식하고 독서하는 기능, 셋째는 명상공간으로서의 기능, 넷째는 관상의 기능, 다섯째는 라바보에서 일어나는 세욕과 세척의 기능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가운데에서도 휴식과 독서, 명상[6] 그리고 관상은 일정한 틀에 얽매여 있었던 수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은 수도원에서도 가장 미적 효과가 뛰어난 곳으로 가꾸어졌는데, 그러한 아름다움은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의 열주에서 나타나는 건축미와 식물과 분수 그리고 수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경미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었다.

2) 내재적 의미

수사를 의미하는 'monk'라는 말은 그리이스어인 'monos'에서 유해하였는데, 이 말은 '홀로 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이라는 뜻을 가진다. 즉, 수도원에서 수행을 하는 수사들은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봉헌된 삶을 산다. 수사들에게 있어서 회랑식 정원은 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막이기도 하고, 에덴동산이기도 하다.

창세기 제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정원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생 갈 수도원의 설계도와 그 이후의 회랑식 정원에서 나타나는 '十'자형 동선과 동선으로 구획된 네 공간 그리고 동선의 교차점에 설치되는 우물, 분수, 분수반과 같은 수경요소는 바로 에덴동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들에게는 수도원에서 묵언을 하는 규범이 있다. 물론 회랑식 정원에서도 이러한 규범은 잘 지켜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범으로 인하여 정원은 관상이나 휴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명상을 하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특별한 신앙적 장소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프랑스 수도원의 회랑식 정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대상 수도원들의 형식은 수도원의 최초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생 갈 수도원의 설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래된 전통에 따라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태는 정방형과 장방형 그리고 사다리꼴 등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정방형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나, 입지적 특성이나 수도원의 배치형식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셋째, 공간구성은 '十'자형 동선에 의해서 정형적으로 구획되는 것이 원형적 형태로 보이나, 연구대상 수도원의 경우 일정한 규범 없이 수사들이 필요에 따라 동선을 내고, 동선으로 구획된 공간에 다양한 식물재료를 도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규범성이 수사들의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동선은 '十'자형, 'X'자형, 'ㅈ'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선 역시 공간구성과 같이 원래의 규범적 형식으로부터 매우 불규칙하고 다양하게 발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입요소는 크게 식물요소, 수경요소, 시설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식물요소는 동선에 따라 구획되는 공간에 다양한 식물요소가 도입되고 있으며, 수경요소는 우물, 분수, 수반 등이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설물로는 벤치가 도입되어 있어 회랑식 정원이 수사들의 휴식이나 독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회랑식 정원의 기능은 성당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구조적 기능, 수사들이 휴식하고 독서하는 기능, 명상공간으로서의 기능, 관상의 기능, 라바보에서 일어나는 세욕과 노동의 기능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회랑식 정원이 휴식이나 관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있었지만, 이곳이 명상공간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주 1. 수도원에는 텃밭정원(Kitchen Garden), 향기정원(Herb Garden), 경작

정원, 과수정원 등 몇 가지의 독특한 정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정원도 있지만 멸실되어 없어진 곳도 많다고 하는데, 그나마 회랑식 정원은 과거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주 2. 수사들의 숙사는 일반적으로 회랑의 복도로부터 연결되는 2층에 있으며, 이곳은 개인실이 아니라 공동으로 방을 쓰는 도미토리(Dormitory) 형식이다.

주 3. 설계도의 글씨체를 분석한 결과, 설계도를 그린 수사는 라이헤나우 수도원의 레긴버르트 였다(고정희, 2011:185).

주 4. 생 갈 수도원은 이 설계도대로 건축된 것은 아니다. 이 설계도의 축척은 1:160으로 도면이 가로 112cm, 세로 77cm이니 설계도에 그려진 수도원의 면적은 약 2ha 정도이다(고정희, 2011:184).

주 5. 이것은 우리나라 한옥의 중정에 큰 나무를 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 6. 명상은 회랑이나 정원 안팎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하는 명상도 있었지만, 회랑 밖의 복도를 돌면서 하는 걷기명상도 있었다. 앉아서 하는 명상은 불교의 좌선과 같은 개념이고, 복도를 걸으면서 하는 걷기명상은 불교의 행선과 같은 개념이다.

References

1. 고정희(2011) 신의 정원 나의 천국. 나무도시.
2. 최형걸(2004) 수도원의 역사. ㈜살림출판사.
3. Canneva-Tetu, Odile(2013) Architecture Des Abbayes. Ouest-France.
4. Erlande-Brandenburg, Alain(2010) Paris: Les Editions du Huitieme Jour.
5. Molina, Nathalie(2006) Silvacane Abbey. Paris: Monum.
6. Molina, Nathalie(2013) Le Thornot Abbey. Paris: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Received : 8 December, 2017
Revised : 11 December, 2017 (1st)
20 December, 2017 (2nd)
Accepted : 31 December, 2017
3인익명 심사필